



Press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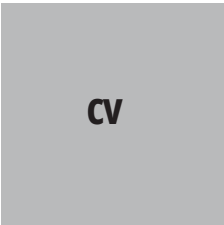
혼종의 유토피아

에이치플럭스(H-flux) 갤러리는 2025년 첫 전시로 박동윤 작가의 <혼종의 유토피아>를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유토피아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신작 20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신작은 자아 인식의 혼란과 문화적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정체성을 예술로 극복하려는 작가의 시도를 담고 있다.

16살에 인도로 유학을 떠난 박동윤 작가는 이후 인도, 미국,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유목민적인 삶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소속감의 부재, 문화적 충돌, 그리고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혼종적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자신의 예술을 “문화적 갈등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조화를 이루는 기억의 순간들을 작품에 담고 있다.

박동윤 작가의 캔버스에는 인도에서 현지인들과 함께한 일상적인 경험,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의 예술가들과 어울렸던 기억, 석호에서 느꼈던 자연과의 교감 등이 다차원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린 시절 할머니 댁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며 느꼈던 불의 에너지는, 이후 미국 미시간 옥스보우 레지던시에서 유리 공예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통해 다시 떠올랐고 그의 작업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또한 인도 갠지스강에서 목격한 화장 의식은 불의 정화와 초월적 의미를 떠올리게 하며 그의 작업에서 불이 가진 상징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이처럼 강렬한 기억의 장면들을 소재로 가져와 연결하고 확장하며, 다채로운 색감과 입체적인 구성으로 자신만의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구현한다.

최광진 평론가는 박동윤의 작업이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와 차별의식에 저항하여, 그러한 분열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문화적 혼종성을 이상적인 세계로 제시한다”라고 평했다. 또한 그것이 “차별의식과 우열의 논리가 생기기 이전의 순수하고 원초적인 세계를 동경하며, 이를 휴머니즘으로서의 놀이본능으로 구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동윤 작가의 작업은 다문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연결하며, 차별 없는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화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통해 조화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CV



학력

대학원 2023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휴학
대학원 2017년 소더비 (SOTHEBY'S INSTITUTE OF ART) 미술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2015년 시카고 예술대학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순수미술학과 졸업

개인 전

2025년 1월22일 -2025년 2월8일 <<혼종의 유토피아>> H-FLUX 갤러리, 서울, 한국
2022년 7월 11일 - 2022년 7월 16일 <<작업실에서>> 돌담갤러리, 제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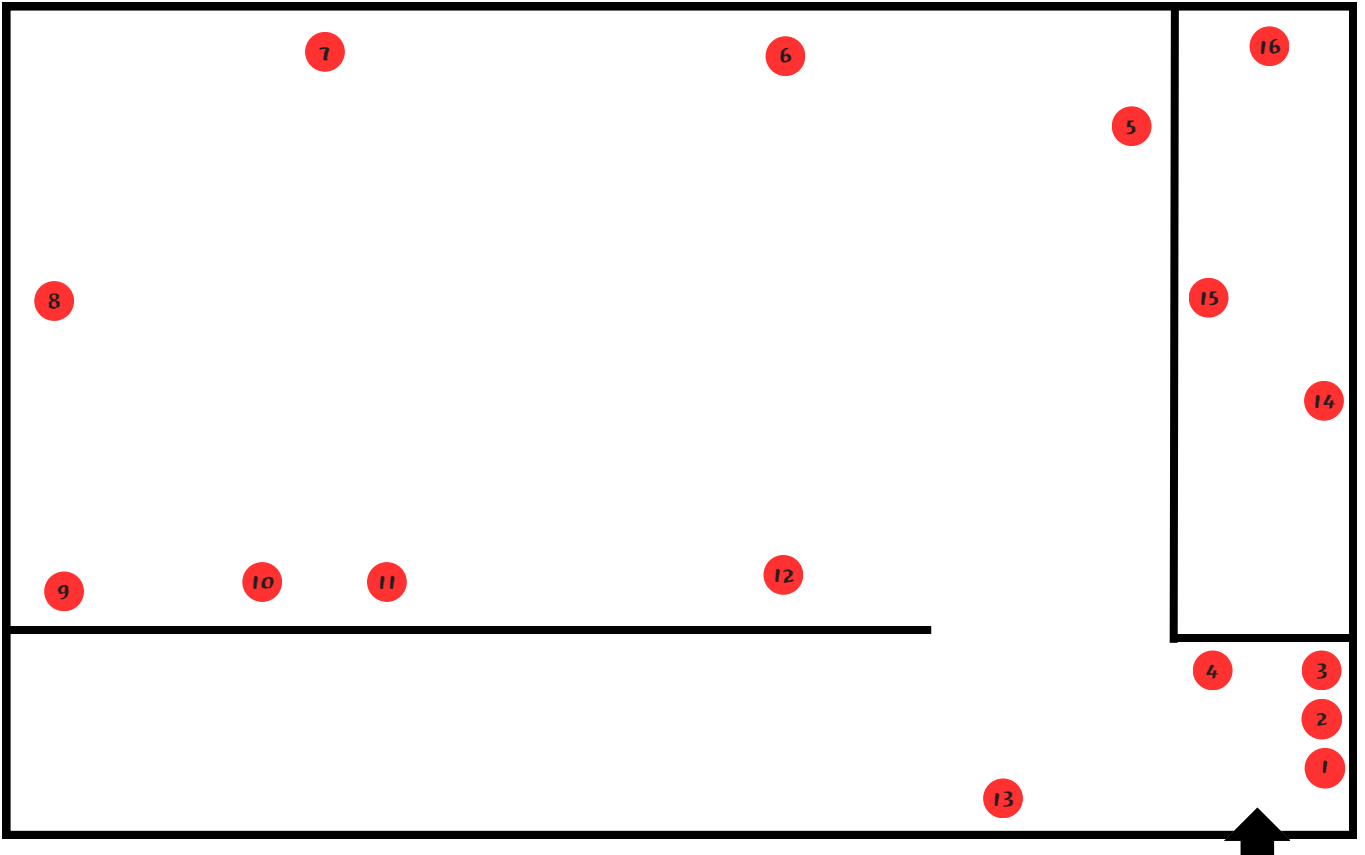
단체 전

2024년 12월 14일 -12월 28일 <<제각각색 프로젝트>> H-FLUX 갤러리
2024년 2월 29일 -3월 18일 <<아틀리에, 그너머>> 제주갤러리, 서울, 한국
2023년 10월 13일 -10월 22일 <<제주아트페스타>> 산지천갤러리, 제주, 한국
2023년 3월 29일 -4월 10일 <<푸른밤아래>>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22년 9월 28일 -10월 10일 <<DROPSHIP>> 제주 창원 청년작가 교류전, 서울, 한국
2019년 8월 21일 -8월 25일 <<FOXHOLES>> FAS 갤러리,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23년 2월- 2025년 2월 장흥 가나아틀리에 (제주작가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





1. 인도향기 *Scent of India*, Watercolor painting, 30 x 23 cm, 2024
2. 사우나 *Sauna*, Watercolor painting, 30 x 23 cm, 2024
3. 세친구 *Best Friends*, Watercolor painting, 30 x 23 cm, 2024
4. 휴가 *Holiday*, Oil on Canvas, 65 x 80 cm, 2025
5. 체찌 *Indian sister*, Oil on Canvas, 65 x 80 cm, 2025
6. 캠프파이어 *Campfire*, Oil on Canvas, 193 x 175 cm, 2024
7. 할머니 하모니 *Harmony means grandmother in Korean*, Oil on Canvas, 170 x 204 cm, 2025
8. 튜브 *Tube Ring*, Oil on Canvas, 204 x 170 cm, 2024
9. 안정 *Rest*, Watercolor painting, 21 x 30 cm, 2024
10. 따뜻한 금발 여인의 발 *White lady with the warm feet*, Ceramic, 2024
 가네샤의 탈것 *Rat that Ganesha ride*, Ceramic, 2024
 인도 코끼리 신 가네샤 *Ganesha*, Ceramic, 2024
 머리에 바람나는 남자 *Man with the windhole*, Ceramic, 2024
 통나무 *log*, Ceramic, 2024
11. 불꽃 *Fire*, Ceramic, 2024
 돌멩이에 앉아있는 터번 쓴 남자 *Punjabi man on the stone*, Ceramic, 2024
 인도 암소 *Indian Cow*, Ceramic, 2024
 배에 앉아있는 인도 여인 *Indian lady with Saree*, Ceramic, 2024
12. 마사지 *Massage*, Oil on Canvas, 200 x 220 cm, 2025
13. 사랑 *Love*, Watercolor painting, 24 x 40 cm, 2024
14. 인도 춤 *Indian Dance*, Oil on Canvas, 80 x 65 cm, 2025
15. 우리 *Sense of Belonging*, Oil on Canvas, 90.9 x 72.7 cm, 2023
16. 장군의 기운 *View of Gwon Yul Janggun Myo*, Oil on Canvas, 65 x 80 cm, 2023